

# 새만금 현안 전체 의원 설명회 개최

### 군산시, 새만금 사업 성공적 추진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설명회 개최

지난 30일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할구역 사수를 위해 군산시 의회를 대상으로 전체 의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군산시가 시의회의장단과 대책회의를 가졌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 현안에 대한 군산시 의회의 전체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군산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새만금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된 군산시 현황 △중요 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정 안건인 동서도로 ·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 문제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3대 사업이 '적정'으로 판정되면서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향후 시의회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확대 △토지 이용계획 △유틸리티 확충 방안 △환경



지난 30일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할구역 사수를 위해 군산시 의회를 대상으로 전체 의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책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전방위적으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 후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를 개척할 기회의 땅"이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통해 동서 도로, 군산 새만금 신항 사수와 완성도 높은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역시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개발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우수 사례 전파

###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체계 중간점검 간담회' 서 강... 우수사례 · 서비스 노하우 공유

익산시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열린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체계 중간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재가 의료급여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기관 10개 지역 27명의 슈퍼바이저가 참석했다. 익산시는 강의에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슈퍼비전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73개 지역 중 추진 실적을 고려해 선정한 10개 지역이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운영에 맞춰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지지체계다.

익산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탁월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문과 교육을 진행해 왔다. 충남 의료급여 담당



익산시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열린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체계 중간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재가 의료급여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자 워크숍과 전북 의료급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강의를 진행했고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금산군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30여 명을 관리해 왔으며, 4명이

서비스 종결을 앞두고 있다. 종결 후에도 대상자의 필요도와 환경에 따라 행복나눔마켓, 이웃애돌봄단 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평가서 '으뜸'

### 군산시,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지자체 실적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전북자치도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안전 점검 실효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서면 평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수준 등 5개 항목에 대한 현장평가 등을 모두 종합한 결과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2일~6월 21일 총 61일간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 안전 점검 기간 내에 시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 총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 안전취약시설 등 134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 배부 및



새만금 국제마리톤 홍보부스 운영, 자체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보수보강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관리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연장

### 6일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축제 맞아

익산시가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발맞춰 미륵사지 방문객을 위한 문화·체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축제 기간 수많은 관광객이 미륵사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제문화체험관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백제문화체험관 내 문화관광해설사도 오후 10시까지 방문객을 맞이한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백제

의복 입어보기, 인생네컷 등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역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문외에 응대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 주요 관광지인 국립 익산 박물관, 백제왕궁 박물관, 보석박물관, 향일독립운동기념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익산시는 관광객들의 해설 수요에 맞춰 주말 혼포역 해설을 추가했고, 합리면 삼부자집 해설을 위해 조영영 가옥 인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 '폐가전제품 내 집앞 맞춤 수거 서비스' 확대 운영

익산시가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폐가전제품 내 집앞 맞춤수거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수량과 관계없이 공동주택과 마을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30일 밝혔다.

'폐가전제품 내 집앞 맞춤수거 서비스'는 익산시와 이(e)-순환거버넌스가 협력해 폐가전제품을 정해진 날에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37개 공동주택에서 이용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에서 중·소형 폐가전제품은 별도로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과 함께 배출해야만 무

상수거가 가능했다.

이에 익산시는 부적절한 배출을 막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1~2개를 배출하려면 배출 스티커 부착 등 처리비용을 부담해야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자원 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 이용은 공동주택, 마을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청소지원과에 팩스(063-859-5471)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익산시 누리집에서 중·소형 폐가전 내 집앞 맞춤수거 서비스 안내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간여행축제 캐릭터

### 지동이 이모티콘 무료배포

군산시가 9월 2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간여행축제 캐릭터 '지동이' 이모티콘을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근대의상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어린이를 모티브로 한 '지동이'를 제작하여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캐릭터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군산시간여행축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는 자동으로 다양한 '지동이'의 친근한 모습을 담은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다.

9월 2일부터 10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새로 구독해도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동이' 이모티콘은 내려받은 시점부터 30일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구시청광장 및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 열람·의견 접수 시작

군산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8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9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필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열람 기간은 9월 2일부터 23일까지이고,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